

영감본풀이와 영감놀이

玄 容 駿

目 次

- | | |
|--------------|-------------|
| I. 序言 | III. 영감놀이 |
| II. 영감본풀이 | 1. 영감놀이의 內容 |
| 1. 영감본풀이의 內容 | 2. 儀禮性和 諷刺性 |
| 2. 영감神의 性格 | IV. 結語 |

I 序 言

영감본풀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영감놀이라는 제주도 巫儀는 1965년 筆者가 그 자료를 최초로 보고하고¹⁾, 1967년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받음으로써 전국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그 알려짐은 이 巫儀의 피상적인 내용 정도였다. 그 후 이 巫儀에 대한 자료의 추가²⁾, 解説³⁾,

-
- 1) 玄容駿, 「重要無形文化財 指定資料 濟州島 무당굿놀이」, 文化財管理局, 1965, pp. 141~155.
 - 2) 玄容駿, 「영감놀이」,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pp. 473~490.
 - 3) 玄容駿, 「영감놀이」, 『韓國의 民俗藝術』,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78, pp. 423~428.

이에 관련된 論考⁴⁾들이 나오으로써 좀더 深度있는 이해가 가능해졌다. 그렇지만, 영감본풀이의 異本이 여러 편 수집되어 있고 이들과 관련시킨 영감놀이의 내용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감놀이의 儀禮的, 演戲的 本性이 아직 선명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巫儀에 있어 '놀이'라는 형식의 儀禮는 본풀이라는 神話를 기반으로 하여 연극적으로 짜여진 일종의 聖劇儀禮다. 따라서 그 儀禮를 이해하려면 그 기반이 된 神話의 분석을 통하여 神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한편 그 儀禮는 劇적으로 전개되니만치 儀禮로서의 성격이 있음과 동시에 演戲로서의 諷刺性을 스스로 내포시키게 마련이다.

영감본풀이와 영감놀이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문제는 視角에 따라 다종다양하지만, 기초적인 문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시각에서 神話와 儀禮의 양상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감본풀이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영감神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영감놀이의 儀禮的 演戲的 풍자성을 밝히려고 한다.

II. 영감본풀이

1. 영감본풀이의 內容

'영감'은 一名 '참봉' 또는 '야채(夜叉)'라고도 하는데, 모두 도깨비(濟州方言으로 도깨비)를 일컫는 말이다. 그 중 尙監이니 參奉이니 하는 것은 도깨비를 높여 부른 말인데, 대표적인 명칭은 '영감'이다. 도민은 이 神을 도깨비불(도깨비불)로 생각하기도 하고 남성으로 인격화된 神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한국 본 토에서는 도깨비이야기가 한낱 흥미본위의 說話로 되어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영감본풀이라는 神話로 巫儀에서 노래불러지고 있고, 도깨비가 神으로 숭앙되고 있다.

4) 張壽根, 「濟州島 巫俗의 도깨비信仰-脫解·處容과의 對比를 中心으로-」, 『韓國民俗論攷』, 啓蒙社, 1986, pp. 328~342.

文武秉, 「濟州島 도깨비堂神話에 관한 一考-文化史的 側面에서-」, 『研究論叢』 제2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院友會, 1982, pp. 30~61.

玄容駿, 「濟州島巫俗研究」, 集文堂, 1986, pp. 187~197.

현재 채록되고 있는 영감본풀이는 총 7편이 있는데, 그 異本은 (A) 안산인본⁵⁾, (B) 김만보본⁶⁾, (C) 조술생본 2편⁷⁾, (D) 고맹선본⁸⁾, (E) 김을봉본⁹⁾, (F) 김옥자본¹⁰⁾ 등이다. 이들 이름은 각각 口述 또는 唱한 자의 이름이다. A·B·D·E는 一族 내지 一家守護神인 ‘조상본풀이’로 창 내지는 구술한 것이고, C와 F는 部落守護神인 ‘당본풀이’로 구술한 것이다. 즉, C는 北濟州郡 翰京面 樂泉里의 당본풀이이고, F는 同面 高山二里의 당본풀이다.

이들 중 가장 간단하면서 내용이 고루 담겨진 것은 안산인본이니, 내용을 가급적 알기 쉽게 표준어로 바꾸면서 옮겨 적어 보기로 한다.

A. 서울 南山 먹자고을에서 허정승의 아들 일곱 형제 솟아나니, 큰아들은 白頭山을 차지하고, 둘째아들은 太白山을 차지하고, 셋째아들은 鵝龍山을 차지하고, 넷째아들은 無等山을 차지하고, 다섯째아들은 智異山을 차지하고, 여섯째아들은 儒達山을 차지하고, 일곱째아들은 제주 淸擘山을 차지하고,

B. 旌義 가면 영감선양으로 놓고, 大靜 가면 도령선양으로 놓고, 爲美金(뚝 및곳) 각시선양으로 놓고, 善屹壺(선을곳) 황세와 돌허리아기씨선양으로 놓고,

C. 썰물에는 강변에 놓고, 밀물에는 수중에 놓고, 산으로 가면 아흔아홉 골 머리·영실·백록담·물장오리·데역장오리·잔 소나무밭·돌무더기 좋아하고, 일만 잠수(海女) 삼천 어부 漁場村에 놓고,

D. 낮엔 연불(煙火) 밤엔 등불에 놓고, 갓양태만 불은 천 것에 옷깃만 불은 도포에 총만 불은 미토리, 한 뼘 못한 곰방대 三冬草를 피워 물고,

E. 수수떡 수수밥 좋아하고, 변소의 흰 돼지 검은 돼지 네발 짐승 좌머리 우머리 좌갈비 우갈비 열두 뼈 좋아하고 시원석석한 간이나 더운 피 좋아하고 고기도 동이로 술도 동이로 받아오던 命監 參奉 夜叉 군졸,

F. 흠어지면 열네 동서 모여지면 일곱 동서 긴 바다 긴 소리 짧은 바다 짧은 소리 어야두야 살강깃소리로 일천 간장 플리던 선왕(船王) 참봉이되다.

이것이 全文이다. 本文의 A~F는 필자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단을

5) 玄容駿, 1980, 硯책, pp. 93~95.

6) 硯책, pp. 475~480.

7) 秦聖麒, 「南國의 巫歌」 프린트版, 1968, pp. 823~828.

文武秉, 1982, 위논문,

8) 秦聖麒, 硯책, pp. 828~830.

9) 硯책, p. 831.

10) 張壽根, 1986, 硯책, pp. 331~332.

나누어 붙여 놓은 기호다.

A段은 神의 出生과 分派, B段은 도내 각처에서 모셔지는 神으로서의 性格, C段은 神이 放浪하며 좋아하여 노는 곳, D段은 神이 放浪할 때의 行色, E段은 좋아하는 음식, 곧 食性, F段은 神의 변모의 多樣性을 설명한 것이다.

영감본풀이는 이와 같이 神의 여러 가지 面貌의 說明을 羅列할 뿐, 그것이 說話的 構成이 되어 있지는 않다.

위의 안사인본은 口述한 것이어서 내용이 간명하게 되어 있으나, 김만보본은 영감놀이에서 실제로 창찬한 것이어서 그 길이가 길고, 내용은 안사인본과 거의 같으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 차이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A의 出生과 分派에 있어, 7형제의 分派가.

- 長男: 서울 三角山 一帶
- 次男: 韓滿國境 白頭山 一帶
- 三男: 江原道 金剛山 一帶
- 四男: 忠清道 鷄龍山 一帶
- 五男: 慶尙道 太白山 一帶
- 六男: 全羅道 智異山 一帶
- 七男: 濟州島 漢拏山 一帶

이처럼 차지했는데, 일곱째아들은 ‘오소리잡놈(난봉장이)’으로 珍島·楸子를 거쳐 제주에 入島한 것으로 되어 있고, C의 좋아하여 노는 곳에 제주 전역의 산·들·바닷가 등 각처 지명을 羅列하였으며, “비 오는 날 좋아하고, 안개 낀 날 좋아하고”라 하여 좋아하는 날씨를 첨가하였다. 그뿐 아니라,

성널오름(城板岳)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여름철 근당하면 물맞으러 가면 열두 흥림 조화풍운 주어 남자로 여자로 보여, 어서 같이 살자, 마음씨 좋다 하여 의탁 부탁되어 천변흥림 불러주던 어지시던 조상님.

이렇게 여자에게 따라붙어 병을 주거나 재앙을 준다는 好色性과 災殃神性의 설명을 덧붙여 놓고 있다.

고맹선본은 神의 出生·分派, 神의 性格, 좋아하여 노는 곳만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김만보본과 같고, 김을봉본은 그 出生이 대국 드른들머리에

서 솃아난 짐씨대감 아들 7형제라 하고, 일곱째 아들이 오입장이로서 제주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 것이 다를 뿐, 다른 특징은 없다.

다음, 당본풀이로서 구술된 조술생본이나 김옥자본은 위의 것들과 다른 점이 꽤 있다.

조술생본은 이야기가 길므로 그 요지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서울 남대문 바깥에서 솃아난 짐치백의 아들 3형제가 불량하여 마을 처녀들의 몸을 더럽히니 만주 드른들거리로 귀양 보냈다.

B. 3형제는 가난하게 사는 송영감 집에 들어가 돼지고기·소주·수수떡·수수밥으로 잘 대접하면 부자가 되게 해 주겠다고 했다. 그대로 윤행더니 송영감이 일시에 거부가 되었다.

C. 이웃 사람들이 이를 보고 도깨비를 위해 거부가 되었다고 수근거리므로 이를 메어 보낼 퍼로 송영감은 3형제에게 안동땅을 집 앞에 메어다 놓으면 잘 대접하여 데려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쫓겠다고 했다.

D. 3형제는 땅을 메어다 옮겨 놓지 못했다.

E. 송영감은 도깨비임이 틀림없음을 알고 3형제를 묶어 놓아 4도막으로 끊어 죽이니 이것이 12형제로 변했다.

F. 송영감은 도깨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白馬를 잡아 집 주위에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걸어 예방했다.

G.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도깨비들은 각각 분산하여 가니, 위로 3형제는 서양 각국으로, 다음 3형제는 日本으로, 그 다음 3형제는 서울 호적케로 들어가 神이 되고, 밑으로 3형제는 제주에 들어왔다.

H. 제주에 들어온 3형제는 가지를 갈라 갔는데, 한 가지는 성내 송정잇집 조상으로, 한 가지는 산신일월로, 한 가지는 청수 당막을 솔풀무신으로, 한 가지는 낙천 소록낭머들 오일분향으로, 한 가지는 으꼬뭇 가시왓다 오일분향으로, 신령, 영락리 구석밭, 고산당으로, 새당 김집의 뒷하르방으로, 한 가지는 차귀당산 수월봉으로, 한 가지는 일곱드르 오일분향, 한 가지는 두미 축일분향, 금농술일분향 등으로 갈려 갔다.

I. 이 神은 흰 망건에 흰 갓을 쓰고, 흰 도포를 입고, 흰 버선 현 행전에 현 신을 신고, 한 뼘 못한 곰방대를 물고 앞엔 청사초롱 뒤엔 흑사초롱 불 밝히고 어둑하면 천리 가고 어둑하면 만리 가고, 잘 먹으면 잘 먹은 값 못 먹으면 못 먹은 값 하던 영감 참봉신이다.

이 본풀이에서는 서울에서 솃아난 도깨비神이 만주에서 귀양살이를 거쳐 제

주로 들어왔는데, 12형제 중 끝으로 3형제라 되어 있다. 이 3형제가 여러 집안의 일월조상·산신일월神으로, 여러 마을의 堂神으로, 그리고 여러 마을의 대장(冶匠)神으로 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한편, 김옥자본을 보면,

- A. 出生地가 珍島로서 9형제인데, 위로 3형제는 大國天子國으로, 다음 3형제는 日本 서낭神으로 들어가고, 끝으로 3형제는 한국의 平安·咸鏡道の 山神大監, 金剛山·三角山·鷄龍山·無等山·儒達山 등의 山神軍卒로 놓고, 제주로 들어와서는 한라산의 장군서낭·遮歸 堂山峯의 영감또·서늘곳의 아끼씨서낭·爲美곳의 각시서낭·旌義곳의 영감서낭·大靜곳의 도령서낭·德修里的 뒷하르방(冶匠神)으로 놓고,
- B. 수수밥·수수떡·술·돼지고기 등을 좋아하고,
- C. 산에서는 山神軍卒, 마을에서는 本鄉軍卒, 거리에서는 死煞鬼, 물에서는 龍王軍卒, 배에서는 서낭(船王) 軍卒로 놓고,
- D. 각종 여(바다에 뺨어내린 바위)나 바다·江邊을 좋아해서 놓고,
- E. 청사초롱에 불 밝혀 낮에는 연불(煙火) 밤에는 신불(神火)로 놀이하고
- F. 여자를 만나면 남자로 변하여(수작걸고), 어둑하면 천리, 어둑하면 만리 가는 영감신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다. 出生地가 珍島로 되어 있고, 9형제로 되어 있음이 특색인데, 위로 3형제씩이 大國·日本 등 外國의 서낭神으로 갔다는 점이 조술생본과 비슷하고, 제주로 들어온 영감神의 神으로서의 성격·食性·좋아해 노는 곳·行色·好色性 등의 서술은 안사인본·김만보본 등과 통한다.

이러한 異本들의 차이는 조상본풀이로서의 영감본풀이와 당본풀이로서의 영감본풀이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地域의 變異의 要因이 큰 듯하다. 안사인본·김만보본·고맹선본 등은 제주시·조천읍 등 島 北部의 것이고, 조술생본·김옥자본 등은 한경면·대정읍 등 島 西部에서 채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變異가 보이면서도 영감神의 도깨비神으로서의 性格은 모두 비슷한 데가 있다.

2. 영감神의 性格

영감본풀이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神은 갓양태만 붙은 흰 갓을 쓰고, 깃만 붙은 흰 도포를 입고, 총만 붙은 떨어진 미투리를 신고, 한 뼘도 못되는 곰방대를 물고 다니는 우스꽝스러운 行色의 神이다. 이것은 제주도 巫俗社會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듯 도깨비불의 人格化임에는 틀림없다. 그것은 이 神이 좋아하는 날씨·좋아하여 노는 곳·放浪하며 移動하는 모습 등의 서술에서도 이해된다. “비오는 날 좋아하고, 안개 낀 날 좋아하고” 하는 날씨가 도깨비불이 잘 나타나는 날씨이고, 썰물에는 강변·밀물에는 수중·산으로 가면 아흔아홉골·영실·백록담·물장오리·잔 소나무밭·漁場村 등 도내 각처를 돌아 다니는데, 특히 음산한 곳을 좋아해서 논다는 것은 도깨비불이 각처에서 나타나 이동해 다님을 말한다. 특히 그 移動하는 모습이 “낮에는 신불·밤에는 연불”로 논다든지, “한 손엔 연불·한 손엔 신불”을 들고 노닌다든지(김만보본), “앞엔 청사초롱 불 밝히고 뒤엔 흑사초롱 불 밝히고, 어둑하면 천리 가고 어둑하면 만리 가고” 하는 모습(조술생본)의 서술은 도깨비불이 순식간에 여기 저기로 이동하는 모습의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도깨비불의 모습은 민간전승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도깨비불을 人格化시켜 神으로 숭앙하고 있으니, 영감신의 性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어떤 機能의 神으로 숭배하고 있느냐 하는 神格性이요, 다른 하나는 어떻게 人格化하고 있느냐 하는 人格性이다.

먼저 그 神格性부터 보기로 하자.

첫째는 富神의 性格이다. 조술생본에서 만주 드른돌거리로 귀양은 3형제를 가난한 송영감이 잘 대접해 위했더니 농사를 지어도 대풍년이 들고 마소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되어 일시에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도깨비神이 富神의 性格이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런 富神의 性格은 民間說話에도 흔히 있다.

김녕리에 살았던 박만호는 수백수의 마소를 부리며 살았다. 어느 날 마소를 돌보러 돌로 나가는 길에 낮도깨비를 만났다. 낮도깨비는 박만호에게 자신을 잘

모셔 주기만 하면 마소는 물론 집안이 잘되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박만호는 곧 바로 집으로 달려와 부인에게 일러 낫도깨비를 고평(庫房)으로 모셔도록 했더니 과연 가세가 일시에 번창해 갔다. 그러던 중 박만호 부인은 잠깐 실수를 하고 말았다. 帝釋祭를 올리기 위해 제물을 차려 받으로 가기 전에 도깨비에게 대접할 것을 잊어 버린 것이다. 그 후 그 집안은 갑자기 망해 버렸다 한다.¹¹⁾

이처럼 이 神은 잘 모시기만 하면 안되는 일이 없어 일시에 거부가 되지만 아차 실수로 대접이 소홀하면 집안이 일시에 망해 버린다는 이야기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 어느 정도 부자가 되면 피를 내어 떼어 버려야 한다고들 한다.

둘째는 船神·豐漁神의 性格이다. 영감神을 ‘선양일월(船王日月)’ ‘영감선양(令監船王)’ ‘뱃선양(배船王)’ 등이라 부르는 것부터가 船神의 성격이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영감본풀이를 ‘선양참본(船王參奉)본풀이’¹²⁾ 라고도 한다. 船王은 제주에서 船神을 말한다.

大靜邑 加波島에서는 漁船을 新造했을 때에 船神을 모셔 앉히기 위하여 또는 멀리 漁撈를 나갈 때 豐漁를 빌기 위하여 ‘船王노리개’ 라는 굿을 한다. 이 굿은 배에 영감(도깨비)神을 청하여 船神으로 모셔 앉히는 데 특징이 있다. 영감은 小巫나 마을 사람이 도깨비로 분장하여 멀리 나가 있다가 수십방이 굿을 진행하다가 영감을 불러 청하면 배로 들어와 劇的인 對話를 벌이고 선왕(船神)으로 坐定하는 模擬的 行事를 하는 것이다.¹³⁾ 이 굿은 영감놀이의 일종이 되겠는데, 이로 보아서는 도깨비神이 船神의 性格이 있음이 분명하다.

船神은 豐漁 자체를 맡아 있는 神이니 豐漁神의 性格을 겸하고 있음은 부연 설명이 필요없다. 그런데 漁村의 전승에 따르면 도깨비가 魚群을 몰아다 잡게 해 준다는 이야기가 많다. 특히 멸치잡이 때가 되어 멸치떼가 몰려올 때 도깨비가 멸치떼를 몰아다 잡게 해 준다는 속신은 강하여 그것을 실제 보았다는 이마저 있다. 그래서 멸치잡이의 豐漁를 비는 ‘그물ㄴ스’ 一名 ‘뿔긔’ 때에는 수수떡·수수밥·돼지미기 등 도깨비가 좋아하는 제물을 차리고 도깨비神을 청하여 대접하는 굿을 얼마 전까지 했었다.

11)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p. 772.

12) 玄容駿, 1980, 뒷책, p. 93.

13) 「加波島 學術調查報告」, 『國文學報 6집』,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4, pp.

세째는 대장(治匠)神의 性格이다. 조술생본에 “한 가지는 청수(翰京面 清水里) 당마를(同面 楮旨里) 솥불미또(솥 풀무神)로” 갈려갔다느니, 김옥자본에 “새당(安德面 德修里의 古名) 德修 뒷하르방으로” 노넘한다느니 한 것은 대장(治匠)神으로 위해짐을 말하는 것이다.

德修里는 예로부터 풀무일이 성하여 솥이나 보습 따위를 만드는 마을로 유명했는데, 이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뒷하르방’이라는 神을 위했다. 이 神은 ‘송도채비’ ‘김참봉’ ‘김영감’ ‘김치배기 송영감’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뒤결 장독대에 깎은 돌로 깻상처럼 만들어 놓아 모시는 집도 있고, 띠를 깔아 그 위에 시루를 덮어 놓고 ‘주쟁이’를 덮어 모시는 집, 소줏고리를 얹어 놓아 모시는 집 등 여러 가지 모시는 형태가 있었다. 모시는 방법은 명절이나 제사 때에 祖上에 대한 本祭가 끝나면 잡식(깻상 위의 제물을 조금씩 떠 모음)하여 이 神을 모신 곳에 던지는 것이 일반이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는 수수떡을 만들어 그 앞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던 것을 약 15년 전 宋氏 집안에서 門中會議를 열고 의논하여 일제히 폐지해 버렸다.¹⁴⁾ 이 神은 대장神으로서의 도깨비神 숭배의 두드러진 예다.

네째는 조상神(一家 내지 一族守護神)의 성격이다. 이것은 영감본풀이가 조상본풀이로서 노래불러지고 있으니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없다. 富神·船神·豐漁神·대장神의 성격이 있으니 그에 관련된 生業을 가진 집안에서 자연 조상神으로 위하게 마련이다.

다섯째는 堂神(部落守護神)의 성격이다. 조술생본에 翰京面 樂泉里, 新坪里, 永樂里, 高山里, 頭毛里, 金陵里 등 堂神으로 갈려갔음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도내 많은 마을에서 이 神을 堂神으로 위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 神을 조상神으로 위하는 집안이 마을에 많으면 자연 共同祭場인 당을 마련하여 위하게 될 것은 당연하다. 도내에 영감神을 堂神으로 모시는 마을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조사되어 있지 않지만, 위에 例擧한 마을만 보아도 꽤 많이 나오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섯째는 病疫神·災殃神의 性格이다. 위의 김만본에서 인용한 것처럼, 이 神은 여름에 城板岳에 물맞으러 간 여자에게 “어서 같이 살자. 마음씨 좋

14) 『學術調查報告書』第7輯,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1982, pp.133

다” 하여 따라붙어 ‘千變凶驗’을 불러준다. 곧 병을 주고 재앙을 주는 것이다. 영감본풀이에는 병을 주고 재앙을 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있지 않지만, 민간전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다.

옛날 어떤 과부가 사는데, 전과 달리 얼굴이 파리하게 말라 드러눕게 되었다. 이상히 여긴 이웃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과부가 말하기를 전옛 생활과 별다름이 없는데, 근간 이상한 남자가 같이 살자고 졸라 밤마다 와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간다고 했다. 다음날 밤에는 숨어 살펴보았더니 도깨비神이 와서 잠 자고 밝을 녘에 떠나는 것이었다(濟州市 老衡洞 女 高氏 談).

웅포리 장덕기씨의 형님이 세 살 때에 병이 나 죽으니 시체를 묻으러 갔는데, 뜻밖에도 숨이 돌아와서 집에 안고 왔다. 그러나, 무덤은 살았는데, 행동이 완전하지 못하여 하던 차에 지나가던 걸인이 형님을 보고서는 도깨비귀신이 들린 것이니 도깨비를 대접하여 보라고 했다. 밤에 수수떡 일곱하고 메 2그릇을 제물로 차려서 바닷가에 가 보니 정신이 완전하여 85세까지 살았다.¹⁵⁾

德修里 각 집안에서는 송도채비라는 것을 모셨는데, 이것은 송씨 집안에 참봉 벼슬을 했던 익대 조상이 진도 벽과진에서 도채비를 저 와서 모심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어떤 이가 정성껏 위하다 하루 안 했더니 집에 불이 났다. 또 조를 파 종하는데, 바빠서 안 위하고 급히 밭에 갔더니, 밭 네 귀에서 불이 활활 탔다. 큰일 났구나 하여 급히 집에 와 보니 집 네 귀에도 불이 훨훨 타고 있었다 한다.¹⁶⁾

위에 든 例話들은 도깨비神이 병을 주고 재앙을 주는 이야기다. 도깨비神은 잘 위하면 富를 이룩하게 해 주는 한편, 아차 실수로 소홀히 하면 재앙을 갖다 주는 것이다. 그러니 “잘 먹으면 잘 먹은 값, 못 먹으면 못 먹은 값 하는 신 위”라고 본풀이에 표현하는 것이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영감神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의 神인데 富神·船神·豐漁神·대장神·조상神·堂神 등으로 집안에 따라 곳에 따라 다른 機能의 神으로 숭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神이 이런 긍정적

15)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pp.395~398.

16) 『學術調查報告書』 第7輯,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1982, p.137.

인 면이 있는가 하면 病疫神·災殃神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모시다가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또 모시는 방법에도 그에 걸맞는 특이한 방식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다음은 이 神의 人格性을 살피기로 한다.

첫째는 怪人性이라 할 만한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神은 그 옷차림새부터가 이상 야릇하다. 갓양태만 붙은 현 갓, 갓만 붙은 현 도포, 총만 붙은 미투리, 이런 차림새에다 한 뼘도 못한 곱방대에 담배를 피워 물고, 앞엔 청사초롱, 뒤엔 흑사초롱 불을 밝히고는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등 음산한 날씨에 山中 水中할 것 없이 음산한 곳을 좋아하여 어둑하면 천리, 어둑하면 만리 식으로 각처를 방랑하여 돌아다닌다. 점잖은 君子다운 性品은 전연 찾아볼 수가 없다. 경솔하고 해피하고 망나니같은 怪人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好色性이다. 본풀이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된 것은 城板岳에 물맞으러 간 여인에게 “같이 살자, 마음씨 좋다”하며 따라붙어 병을 준다(김만보본)는 정도이나, ‘오소리잡놈’(김만보본) 또는 ‘오입쟁이’(김을봉본)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다. ‘오소리잡놈’이니 ‘오입쟁이’라고 이 神을 놓고 일컫는 것은 그 好色性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밤마다 과부방에 와 동침해 병을 앓게 했다는, 위에 든 例話도 好色性을 말해 주는 것이거니와 다음의 이야기들도 好色性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젊은 과부가 왜 일인지 날마다 서름시름 여위어 갔다. 동네 할머니가 그 이유를 물으니, 날마다 밤만 되면 털뽕거지 쓴 사람이 와서 자고 간다고 했다. 할머니는 도깨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동지 설탈에 오이를 먹고 싶으니 그것을 기서오면 쫓아내지 않겠다 하라고 일러 주었다. 도깨비는 그 귀한 오이를 가져왔다. 이번엔 할머니 말에 따라 옆집 마당을 베어다 우리 마당에 붙여 놓으라고 했다. 도깨비는 이것만은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다시는 오지 못하게 백마를 잡아 말 가죽을 울타리에 걸쳐 놓고 말뼉을 사방에 뿌려 방비했다.¹⁷⁾

용공리 한 부인이 힘이 장사인데, 어느 날 험재리엘 갔다 오는 길에 도깨비를 만났다. 도깨비가 부인에게 동침하자고 달려드니, 부인이 도깨비의 모가지를 잡아놀러 치마폭에 담아 집에 오고 보니 참빛 남은 것이었다.¹⁸⁾

17) 『學術調查報告書』第8輯,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1984, pp.128~129.

18) 上揭, 『濟州說話集成(1)』, p.398.

밤에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 버리면 도깨비가 남편인 척해서 들어와 부인과 동침한다느니, 남편이 죽어 버리면 도깨비가 남편 대신 동침한다느니 하는 전승이 얼마든지 있다.

세째는 好食性이다. 위에서 수수밥·수수떡·돼지고기·소주 등을 좋아함을 말했거니와, 이 食性은 이러한 음식을 귀중식품으로 치는 文化複合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食性은 도깨비信仰의 根源이 되는 文化背景 해명에 주요한 관건이 된다. 이의 考究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돼지고기나 그 시원석성한 간, 더운 피, 소주 등이 제주에서는 과거 아주 고급 식품으로 쳤다는 점에 주목하려 한다. 영감神이 이러한 돼지고기류나 소주를 동리로 받아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好食性을 보여 주는 일면이 있다는 것이다.

네째는 愚鈍性이다. 영감본풀이에는 우둔하다는 표현이 없지만, 민간전승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보인다.

술 취한 사람이 밤길을 가는데, 자꾸 말을 걸어오는 놈이 있어 '도깨비로구나' 직감하고, 뺨버릴 궁리를 하여 "내가 너의 아비한테 돈 몇 천량을 꾸어 주었는데, 너의 아비는 그것을 갚지 않고 죽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도리어 나를 욕보이려 하니 정말 꽤썩하다. 오늘은 너를 사생결단 내야 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도깨비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 이번만 용서하면 그 빚은 꼭 갚겠다고 하며 달아났는데, 한밤중이 되자, 집 방문 밖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도깨비가 따라온 것이 아닌가" 하며 무서워 문을 못 열다가 밝아서 보니, 어리석은 도깨비가 빚을 갚는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케첩을 저다 쌓아 놓아 두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¹⁹⁾

도깨비는 돈을 갖다 줘 놓고도 그것을 잊어 버려 자꾸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흔하고, 또 씨름을 걸어온다는 이야기도 많다. 씨름을 할 때 도깨비가 "어떤데가 제일 무서우냐?"고 물으면 피를 내어 평평한 메밀밭이 무섭다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도깨비놈은 메밀밭에 저다 던져 버려서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깨비는 무한한 능력을 가져 있으면서도 우둔하기 이룰데 없어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괴물이라는 것이다.

19) 上揭, 『學術調查報告書』 第8輯, pp. 129~130.

이상과 같이 도깨비는 神으로 숭앙되면서도 그 人格性은 부정적 인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神格性·人格性이 그 儀禮樣相에도 그대로 투영될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Ⅲ. 영 감 놀 이

1. 영감놀이의 內容

영감놀이는 영감神이 여인의 미모를 탐하여 범접했기 때문에 앓은 병을 치료 하려는 경우, 漁船을 새로 짓고 船神인 船主를 모셔 앉히려는 경우, 또는 마을의 당굿이 행해질 경우 등에 실연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실제 실연 현장을 조사 기술한 보고로는 병을 치료하는 곳으로 행하는 것만이 있다.²⁰⁾ 따라서 여기서는 신병 치료를 위한 영감놀이의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 놀이는 마당에 켓상을 차리고 밤에 행한다. 켓상 위에는 다른 곳 매와 마찬가지로 메, 떡, 쌀, 채소, 과일, 술 등 여러 가지 제물을 올리는데, 특히 돼지머리, 수수떡, 소주 따위 영감신이 즐겨 먹는 음식을 올린다. 북, 징, 설쇠, 장구 등 巫具가 소요됨은 다른 곳과 같은데, 이외에도 영감신의 가면 두 개와 짚으로 만든 자그마한 배를 준비해야 한다. 가면은 심방이 특히 연희적 효과를 노리려고 할 때에는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 물감으로 그려놓기도 하지만, 보통은 창호지에 눈과 코와 입의 구멍을 뚫어 얼굴을 가리어 덮게 하고 수염을 붙여 놓는다. 이 가면은 놀이가 끝나면 紙錢과 같이 태워버린다. 배는 짚을 실이나 노끈으로 엮어서 배의 형태를 만들고, 가는 막대기를 배 중심에 꽂아서 돛대를 담고, 백지를 거기에 달아매어 돛을 삼는다.

준비가 완료되면 소미(小巫) 두 사람이 영감신의 가면을 쓰고, 현 도포를 입고, 현 짚신을 신고, 현 갓을 쓰고, 곰방대를 물고 하여 영감신으로 분장한다. 그래서 짚자루에 돼지고기, 내장 등을 싸들고, 손에 햇불을 치켜들어 집 바깥으로 멀리 나가 양쪽으로 갈라서서 기다린다. 규모를 크게 하여 놀이를 벌일 때에는 영감 7형제 중 환자에게 범접한 막내 동생만 제외한 6형제를 차린다 하여 소미(小巫) 여섯 사람이 영감으로 분장하여 대기한다.

20) 玄容駿, 1965, 윗책, pp.141~155, 同 1980, 윗책, 473~490.

준비가 모두 끝나면 마당의 굿청에서 수심방(首巫)이 군복차림을 하고 일반 굿을 하듯 초감제부터 시작 하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짜여진다.

① 초감제 : 굿하는 날짜·장소·연유를 신에게 고하고 모든 용왕신을 청해 앉히고, 이어서 영감신을 청하는 祭次.

② 영감청합 : 영감신을 청해들으면 분장한 영감신들이 등장하여 수심방과 연극적인 대화로써 청한 사연과 오게된 사연을 낱히고 환자에 범접하고 있는 동생인 영감신을 찾아내어 놀이를 베푸는 과정.

③ 막무다시 : 범접한 영감신을 배에 태워 보내기에 앞서 환자에 범접한 모든 잡귀를 쫓아 버리는 제차.

④ 도진(배방선) : 환자에게 범접해 있는 영감을 배에 태워 바다에 멀리 띄어 보내버리는 제차.

위의 제차 구성별로 진행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감제

초감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1) 베포도업침 : 군복차림의 수심방이 신칼과 요령을 들고 서서 "스신 용왕(四神龍王) 연맛이 어간 뽀니다. 요왕연맛이 천왕베포 도업으로 제이르자"는 辭說唱에 이어 북·징·설쇄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고, 춤이 끝나면 다음 사설의 노래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내용은 日月星辰의 발생, 국토의 형성, 국가·인물의 발생 등, 자연·지리·역사적 현상의 발생을 차레차레 노래해 가는 것이다. 이것은 굿하는 장소를 신에게 해설해 올리기 위해서 태초적인 사실부터 확대시켜 설명해 가는 것이다.

(2) 날과 국 섬김 : 위의 지리적·역사적 해설을 점점 좁혀서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설명해 올리는 단락이다.

(3) 연유담음 : 굿을 하는 연유, 곧 영감놀이를 하게된 사연을 신에게 고하는 단락이다. 이 단락에서 이 집안 몇 째 딸 누구 몇 살이 언제 바다에 물질(해녀 일)을 하러 갔다가 어떻게 하여 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영감신이 범접한 것이라는 점괘가 나서 이 굿을 하여 병을 고치려 한다는 내력을 소상히 노래한다.

(4) 군문열림 : 신이 하강하려면 神宮의 문이 열려야 할 것이므로 이 대목은 신궁의 문을 여는 대목이다.

“스만스천(四萬四千) 계룡신문(諸龍神門) 을리웁고, 물 알(下)에는 용왕(龍王)입고, 물 우(上)의는 선왕(船王)입네다. 신주(神主)의 선왕문(船王門)을 을리는디, 서울 남산(南山) 먹자꼴서 솟아나던 허정승(許政丞)의 일곱성제간(七兄弟間) 영감참봉(令監參奉)님도 문 을립서……”

이러한 사실을 창하고 격렬한 도랑춤으로써 군문을 여는 과정을 시행한다.

(5) 새 드림 : 군문이 열렸으니, 신이 내려오는 길의 邪를 쫓아 깨끗이 해야 할 차례다. 소미(小巫)가 교대하여 나서서 댓뚝으로 정화수를 적서 뿌려서 부정을 씻고 흥겨운 무악 반주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노래하여 邪를 쫓는다.

새물로 새양야 원물로 원앙야
 새물로 드리자 원물로 드리자
 어느야 물에사 새아니 놀며
 어느야 물에사 용 아니 노리까
 지퍼야 물에는 용이나 놀고
 야퍼야 물에는 새 앓아 노는고
 요새를 드리자 저 새를 드리자
 쏘그려 우는새 배고파 우는새
 목물라 우는새 물그려 우는새
 쓸주며 드리자 물주며 드리자
 주워나 칠쪽
 칠쪽 칠짱 낫낫히 드리난
 어느새 드리리
 천왕새 드리자 지왕새 드리자
 ……………

(6) 정대우 : 모든 용왕(龍王)신을 칭해들이고 이어서 영감신을 칭하는 단락이다.

문 열린디, 저 인정잔(人情盞) 주잔(酒盞)으로 권권 디리가며, 스신요왕(四神龍王) 연맛이로 동이(東海)와당 광덕왕(廣德王) 서이(西海)와당 백요왕 남이(南海)와당 적요왕(赤龍王) 부이(北海)와당 흑요왕 중앙황신요왕 살려옵서

이와 같은 사실로 용왕신을 청한 후, “그 뒤으로 어진 조상 선왕일월(船王日月) 영감 참봉, 야채 참봉(夜叉參奉)이 주당(住堂) 나이 몇 살에 침누를 하여 오던 선왕님도 요왕연맛이로 제청대래 호호 하며 살려옵서.” 하는 사실과 위에서 말한 영감본풀이를 길게 노래하고 영감신을 청한다.

(2) 영감청함

영감신을 청하는 대목은 위의 정대우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서 이루어진다. 기다란 영감본풀이를 노래하고,

“이런 영감님이 한라산으로 하여 濟州三邑 방방곡곡을 돌면서 놀다가 이제 祭廳으로 들어서려고 한다. 영감님은 부르면 들어서자, 외치면 들어서자 하는데 三仙香을 피워 들고 모셔들이자.”

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향로와 요령을 들어 바깥을 향하여 신을 맞이하는 춤을 춘다. 이 때 굿청에서는 불을 꺼서 캄캄하게 하면 멀리 나가 대기해 있던 영감(분장한 小巫) 둘이 서로 횃불을 내두르며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굿청 가까이로 들어와 간다. 수심방이 바깥을 향해 큰 소리로 영감을 부른다.

수심방 : 영감! 영감!

영감 : 허허허허, (영감 둘이 술이 취해 비틀거리며 요란하게 굿청으로 들어온다. 이 때 굿청에 불을 켜다.)

수심방 : 영감!

영감 : 허허허, 뭐요?

수심방 : 영감이요?

영감 : 음, 내 영감이요.

수심방 : 하, 먹다 남은 꽃감이로구나.

영감 : 허허허.

수심방 : 하, 영감, 영감이 어째서 여길 찾아왔으?

영감 : 우리는 서울 남산 먹자고을 허정승의 아들인데, 우리가 일곱 형제요. 우리는 팔도강산 다 땀기지요. 물이 들면 강변에 놀고, 물이 쟁면 수중에 놀고, 산천마다 여 끝마다 아득하면 천리가고 만리가는 영감이요.

수심방 : 그렇지, 맛았어.

영감 : 그런데, 우리 막내동생이 제주 한라산에 와 있다 하길래 찾아보려고 오는데, 백두산으로, 두만강으로, 평안도 압록강으로, 대동강으로 하여 구월산으로, 경상도 태백산, 전라도 지리산, 광주 무등산으로, 목포 유달산으로, 진도 벽파진 울돌목을 지나 추자 안섬, 추자 밧섬으로 제주 수평선을 근당하고, 해자마다 제주 사백리주를 찾아보되 못 찾아, 한라산으로, 백록담으로……(中略)…… 이 마을을 오고 보니, 이 집에서 향냄새가 건똥하고, “영감, 영감”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길래 들어왔소,

수심방 : 하, 수고하셨소. 그렇지 않아도 바라고 기다리는 중인데, 잘 오셨소.

이렇게 영감을 맞아들이고, 수심방과 영감은 대화를 계속해 간다. 좋아하는 곳이 어떤 곳이나? 어떤 날씨를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나? 해녀나 과부도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해학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이다. 이런 대화는 來訪한 신이 영감신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대화의 해학과 영감의 경망스런 행동이 구경꾼의 웃음을 자아낸다.

영감신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한 수심방은 이어서 “당신의 막내동생도 역시 여자를 좋아해서 이 집 따님에 침노하고 있으니, 얼굴이라도 보는 게 어떠냐?”고 제의하면, 영감은 “어서 빨리 얼굴이나 보자”고 환영한다. 여기에 환자를 데려다 앉히면, 영감은 “하하, 내 동생이 절실하구나. 너 이 놈아, 널 찾으려고 아닌 고생을 다하며 찾아왔는데, 어찌 그리 무심하냐”고 하면서 환자의 어깨를 치며 같이 가자고 동생을 달랜다. 수심방은 쟈상의 음식을 가리키며 “당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냐?”고 음식을 권하고, 영감들은 “잇몸이 벗겨지게 먹다 남은 음식이라”고 좋아하며 실컷 먹고 놀고 떠나가자고 한다. 여기에 술과 고기와 떡을 내놓으면 영감들은 수전증이 심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로 권하여 술을 마신다. 소주도 동이로 탁주도 동이로 먹어가니 수전증이 저절로 났다고 하며 실컷 마신 영감들은 이 집안 자손과도 이별잔·작별잔을 나누자며 환자나 가족에게도 술을 권한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판 실컷 놀고 가자고 하여 ‘서우쟈소리’에 맞추어 짚으로 만든 배를 들고 춤을 춘다. 이 때 환자나 가족이나 구경꾼들도 함께 어울려 한참 동안 춤을 추며 즐거이 논다.

춤이 끝나면 영감신은 “명주바다에 실바람이 나는데, 물때가 점점 늦어진다”고 하면서 쌀, 물, 제주 명산물 등을 배에 가득 실으라고 한다. 소미(小巫)들이 마치 무거운 짐을 싣듯이 “에양차, 에양차” 하면서 짚으로 만든 작은 배

에 제물을 조금씩 실어 놓는다.

수심방 : 미역은 얼마나 실었느냐?

소미(小巫) : 일만 총 실었소.

수심방 : 초기(버섯)는 얼마나?

소미(小巫) : 일만 총이요.

이런 식으로 우무, 청각, 전복, 소라 등 제주 명산물을 배에 가득 싣고, 닻을 감고 돛을 달고 복을 올린다. “이별이여, 작별이여, 배 놓아가자!”고 외치며 동승을 데리고 가는 양으로, 영감들이 그 배를 매고 바깥으로 나가 배방선할 때를 기다린다.

(3) 막푸다시

영감신을 배에 실어 내보내고 나면, 수심방은 환자를 굿청에 앉혀 돛자리로 환자의 몸을 둘러 주위를 못보게 감아 놓고 푸다시를 한다. 푸다시란 모든 잡귀를 쫓는 祭次다. 모든 잡귀의 이름을 날날이 호칭하며 썩 물러나라고 협박하여 내쫓는 사설을 북·장고 장단에 맞추어 노래한다. 그러면서 신칼로 사정없이 환자의 몸을 찌르는 시늉을 하며 내쫓는 것이다. 잡귀를 내쫓고 나면 완전히 쫓아 보내 버리는 의미로 환자의 머리에 햇불을 피워 붙이기도 하고, 큰 성냥을 머리 위에 올려 놓아 불을 붙이고 일시에 불이 퍼지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환자는 몸에 감았던 돛자리를 벗어 던지고 방안으로 가 누워 버리고, 수심방은 집안 마당 할 것 없이 주위에 콩을 세게 뿌리며 “헛쉬·헛쉬”하면서 집안의 사악한 것을 모두 쫓아내어 버린다.

(4) 도진(배방선)

막푸다시가 끝나면 수심방은 소미(小巫)들을 시켜 제물을 실은 짚배를 들고 바닷가에 간다. 그래서 징을 울리며 영감신과 제주 명산물들을 가득 실어 보내는 사설을 하며 짚배를 바다 멀리 띄워 보내 버린다. 이것으로 영감놀이는 모두 끝이 난다.

2. 儀禮性과 諷刺性

보아 온 바와 같이 이 영감놀이는 ‘영감칭함’이란 대목에 그 중심이 있다. 수심방이 祭場에서 초감제를 하여 請神의 대목에 “영감! 영감!” 하고 神을 불러 청하면 영감神으로 분장한 小巫가 들어 온다. 바로 영감神의 등장인 것이다. 그래서 영감神과 수심방이 극적 對話를 엮어 가는데, 그 내용은 祭場까지 찾아온 經路, 좋아하여 노는 곳, 좋아하는 날씨, 좋아하는 음식, 好色性 등 영감神의 性格에 대한 問答으로, 찾아든 神이 영감神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확인이 끝나면 환자에 범접해 있는 동생을 만나게 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실컷 대접하고 한판 즐겁게 논 후, 제주의 名産物을 한 배 가득 싣고 동생을 데려가 버리게 하는 것이다. 범접해 있는 동생영감을 분리시켜 데려가면 병이 나올 것은 당연하다. 병의 원인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으로 보아 영감놀이는 類感呪術儀禮다. 類似는 類似를 낳는다는 類感呪術思考가 그 기반에 깔려 있다. 患者에게 범접해 병을 주는 영감神을 그의 형들로 하여금 데려가 버리게 하는 행위를 모의적으로 실현하면 환자에 범접한 神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思考의 所産인 것이다.

제주도 巫俗의 神靈觀에 의한 治病儀禮는 祈願有和儀禮, 脅迫驅逐儀禮 등의 방식이 주가 된다. 전자는 善神이 벌로서 내린 병을 간절히 기원하여 그 神의 마음이 풀리게 하여 고치는 儀禮이고, 후자는 惡神이 범접하여 앓은 병을, 그 神을 협박하여 쫓아내어 버림으로써 고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영감神이 준 병은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類感呪術의 方式을 쓰고 있다. 이것은 전혀 그 神格성에 기인한 것이다. 영감神은 富神性·船神性·豊漁神性·대장神性 등 긍정적 측면이 있어 조상神·堂神 등으로 위하기도 하고 동시에 病疫神으로서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니 이 神은 祈願有和方式으로 떨어질 神이 아니요, 그렇다고 학대하여 협박하고 쫓아낼 성격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의 형들을 유인하여 곱게, 마음 상하지 않게 데려가게 해서 떼어내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類感呪術儀禮方式을 취하게 되니 그것은 자연 연극적 행위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儀禮는 神과 인간의 대화가 주요한 요소로 되어 있다. 神聖界의 神과 俗界의 인간이 서로 교섭하는 接點, 이것이 儀禮인 것이다. 神과 인간의

相面·교섭은 언어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추상적인 언어나 상상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바람직한 것은 인간이 神을 청하면 神이 몸소 몸을 이끌고 眼前에 나타나는 일이고, 소원을 빌면 眼前의 神이 전목적으로 感應함을 언어와 행동으로 실제 보여 주는 일이다. 그래야 神과의 대화가 구체성을 띠고 실감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형체없는 神이 형체를 가지고 인간 앞에 군림해야 한다. 神의 군림은 인간이 神으로 분장하여 나타나고 소원을 들어 주는 행위를 모의적으로 보여 주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神과 인간의 교섭 행위를 연출해 내면 그 의례는 벌써 演戲요, 演劇이다. 영감놀이는 類感呪術儀禮임과 동시에 바로 이러한 演戲요, 演劇이다.

‘놀이’는 ‘놀리는 것’이 주요한 요소로 되어 있다. ‘놀리다’란 말은 ‘회롱하다’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회롱·조롱’은 풍자의 한 가지 재주다. 영감놀이는 제주도의 서민 사회에서 이루어진 놀이기 때문에 서민적인 풍자가 담겨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 풍자성을 보자.

도깨비神을 令監 또는 參奉이라 하는, 그 명칭부터가 풍자다. 令監은 正三品과 從二品의 벼슬을 부르는 칭호인데 이 어마어마한 양반을 도깨비에다 비유해 놓고 있는 것이다. 正二品 이상의 벼슬은 大監이라 부른다. 이 영감神의 형제들이 八道江山의 유명한 산과 그 일대를 차지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아버지는 허정승이라 되어 있다. 허정승, 곧 허대감의 아들들이 모두 八道江山을 차지하여 돌아다니며 주무르는 社會現實, 그것을 모두 도깨비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스며 있다.

더구나 濟州島의 최고 관원인 牧使는 正三品 벼슬이다. 제주도에 令監 이상의 벼슬이 없는 셈이다. 그러니 제주도에서 도깨비를 영감이라 부른 것은 도내 최고의 양반이요, 관원인 濟州牧使를 구체적으로 비유하여 풍자한 것이 된다. 濟州牧使, 곧 도깨비 같은 것이라는 말이다.

이 어마어마한 양반을 비꼬는데, 영감의 꼬락서니부터가 가관이다.

핀지만 부튼 망근(網巾) 쓰고 평만 부튼 세케리(敝笠)에 짓만 부튼 시도복(道袍)에 모기만 부튼 시질목(버선)에 단만 붙은 행경(행진)신고 깍만 붙은 신을 신고 정동 건어 반돌굴이 돌(돌메끈)을 메고 호 뽐(뽐) 뽐은 곰방대에 앞엔 청사초롱 불 붙히고 뒤엔 흑사초롱 불 붙히고, 엇득ㅎ민 천리 가고 엇득ㅎ민 만리 가고……(조술생본)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마치 가난한 흥부가 읍내 행차할 때의 차림새 같다. 분명 몰락 양반에 대한 嘲笑가 있다.

이런 주제꼴에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등 음침한 날이나 좋아하고, 특히 밤을 좋아하여 각처를 방랑하여 다닌다. 거기다가 제집을 특히 좋아하여 “어서 같이 살자, 마음씨 좋다” 하며 따라붙어 병이나 주는 도깨비, 그런 것이 바로 영감 곧 牧使라는 것이다.

이런 영감의 好色性은 영감놀이에서 수심방과 영감神의 對話에서도 나온다.

수심방 : 이거 보시오, 영감은 어디가 짙(第一) 좋아하어요?

영감 : 우리는 八道名山 山川마다 가쁜 머들 한머들 돌곳 여곳 난여 든여 정살여 도랑여 숨은여 어디서나 놀지.

...(中略).....

수심방 : 저 어장촌 좋아하고?

영감 : 허, 잘 아는구나. 그렇지, 일만 좀수청 좋아하고.

수심방 : 홀어명(寡婦) 방도 좋아하지요.

영감 : 그렇지, 더 좋아하지.²¹⁾

이런 영감神 곧 양반은 궁청에 들어오면 제 입에 맞는 음식이나 찾고, 너무 술을 처먹어 수진증이 심한 주제에 술과 돼지고기를 실컷 얻어먹는다. 그리고는 해녀들이 死境을 헤매면서 따낸 전복·소라·미역 등 제주의 명산물을 한 배 가득 싣고 치송해야 병의 원인인 동생음 데려가 준다. 이것은 과거 濟州 牧民官들이 일상 했던 행위를 반영한 것이다. 怪人性·好色性·好食性·愚鈍性 등 도깨비의 人格性이 牧民官의 그것에 딱 들어맞는 것으로 제주 서민들의 눈에 비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牧民官들의 그 부패한 행위를 궁에서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감놀이는 이러한 풍자가 얼른 곁에 드러나지 않는다. 놀이의 모습만 보면 환자에 범접해 있는 도깨비神을 떼어 보내는 劇의 儀禮로 보이지, 그 속에 牧民官의 부패성이 담겨 있음을 눈치챌 수가 없다. 이처럼 양반 곧 牧民官의 부패상을 은연중에 폭로·풍자하고 있다는 데에 영감놀이는 演戲로서의 우월성이 있는 것이다.

21) 윗책, p.153.

Ⅳ. 結 語

이상, 영감본풀이의 異本들을 검토하여 거기에 담긴 영감神의 性格을 살피고, 영감놀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儀禮性和 演戲로서의 諷刺성을 살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영감본풀이는 조상본풀이로서의 그것과 당본풀이로서의 그것이 話素上的 차이를 보이거나, 영감神의 性格 표현에는 별 차이가 없다. 話素上的 차이는 지역적 變異가 그 요인인 듯하다.

2. 영감神은 도깨비불의 人格化로서 富神·船神·豐漁神·대장(治匠)神·病疫神·災殃神 등의 神格성이 있어 조상神(-家 내지 一族守護神) 또는 堂神(部落守護神)으로 위해지고 있는데, 그 人格化는 怪人·好色·好食·愚鈍 등의 어휘로 표현될 性格의 인간으로 되어 있다.

3. 이러한 神格性·人格성이 기반이 되어 이 神에 대한 儀禮는 영감놀이라는 類感呪術儀禮를 형성시켰는데, 類感呪術儀禮이므로 스스로 劇的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演戲가 되었다.

4. 演戲로서의 영감놀이는 양반의 풍자, 특히 濟州 牧民官의 부패상을 폭로·풍자하고 있는데, 그 풍자가 儀禮 속에 은연중 감싸여 있어 겉에 드러나지 않게 짜여져 있는 점이 演戲로서 우월한 점이다.

이상이 본고의 내용인데, 이것은 영감본풀이와 영감놀이 연구의 기초적 작업에 불과하다. 한국의 도깨비信仰은 한국 문화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다각적으로 추구하는 데 지역적 자료로서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영감본풀이 7편과 治病儀禮로서의 영감놀이만을 대상으로 다루었는데, 또 도내 다른 지역의 영감본풀이와 당곳 기타 儀禮로서의 영감놀이가 조사·채록되면 또 다른 儀禮性이나 演戲性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것은 앞으로의 課題다.